

KLI 고용·노동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2. 12. 7 | 통권 제35호(2012-23)

2012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3년 전망*

[요약]

- 2012년 10월까지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461천 명 증가해 침체된 경기와는 대조되는 증가세를 보였음.
- 이와 같은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는 50대 이상 취업자 증가 및 자영업자 증가에 힘입은 바 큼.
- 자영업자는 2012년 10월까지 전년동기대비 약 14만 명가량 증가했으며, 2011년 8월부터 15개월째 순증가를 이어왔으나, 최근 들어 전월대비 증감을 볼 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증가세가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 내수산업 위주의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이 2012년 10월까지 전년동기대비 455천 명 증가하면서 최근 고용호조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제조업 고용 또한 2012년 7월부터 상용직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됨.
- 중소기업 주도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되어 2012년 10월까지 전년동기대비 412천 명 증가하였으나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은 다소 둔화됨. 중소기업·대기업 모두 신규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2년에 이어 L자형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순응적인 패턴을 보이는 임금근로자의 고용증가폭은 올해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자영업자의 증가세는 최근 추세와 기저효과로 다소 주춤하리라 예상되어 2013년 취업자 증가폭은 33만 명 수준으로 전망됨.

* 이 글은 「2012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3년 전망」(동향분석팀(2012), 『노동리뷰』 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 지속

- 2012년 10월까지의 상황을 볼 때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461천 명 증가하여 국제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함.
-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데 비해 취업자 수는 1.9%가 증가해 비경제활동 인구는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하는 데에 그쳤고, 실업률도 3.3%로 전년동기보다 0.2%p 감소하여 노동시장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 후반만 전년동기대비 고용률이 소폭 하락했을 뿐 나머지 연령대는 고용률이 상승해 양적인 면에서 좋은 노동시장 상황을 보였음(표 1 참조).
- 지난 3분기 고용률 추이를 보아도 25~29세, 40대에서 다소 하락하였을 뿐 나머지 연령대는 고용률이 상승하였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최근의 고용률 흐름이 고용 호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조심스러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2년 들어 임금근로자 수 증가가 둔화되어 있는데, 이 영향이 25~29세 3분기 고용률 하락으로 나타난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또한 30대의 고용률 개선은 노동시장 둔화의 영향으로 이직이 빠르게 감소하는 플로우(flow) 둔화의 결과일 수 있음. 경기침체의 지속은 입직 흐름도 둔화시켜 30대 고용률도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50대는 국제금융위기 영향이 있었던 2009년 3분기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 증가뿐 아니라 고용률도 꾸준히 증가했음.
- 자녀가 여전히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후소득은 부족한 이유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어려운 상황, 인구증가가 취업통계에 단순히 반영되는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은퇴한 일부 50대가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흐름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증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음.
 - 생애 주된 직장에서 은퇴 후 새로운 진입을 한 것이라면 근속 또는 창업 후 1년 미만 일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증가했겠지만, 실제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 모두 같은 직장에서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더 많이 증가해 이와 같은 50대 취업자 수 증가의 성격을 보여줌(표 2 참조).
- 이는 결국 50대 취업자 수 증가에서 노동공급 측 요인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경

〈표 1〉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1~10	2008.1~10	2009.1~10	2010.1~10	2011.1~10	2012.1~10	
고 용 률	15~19세	6.6	5.9	5.4	6.1	6.8	6.7	6.1	5.4	6.1	6.9	7.0
	20~24세	48.0	45.5	44.6	44.3	43.5	48.1	45.9	44.6	44.3	43.5	44.7
	25~29세	68.4	68.5	67.5	68.2	69.7	68.4	68.5	67.4	68.2	69.7	69.6
	30~39세	72.9	72.9	71.3	72.0	72.2	72.7	72.9	71.2	71.9	72.1	72.7
	40~49세	78.3	78.4	77.7	77.8	78.4	78.2	78.3	77.7	77.8	78.3	78.4
	50~59세	69.7	70.6	70.3	70.9	71.6	69.6	70.6	70.3	70.9	71.5	72.2
60세 이상	38.1	37.2	36.7	36.0	36.5	38.3	37.4	37.1	36.2	36.7	37.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 50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창업 후 유지기간 및 근속기간 분포

(단위: 천 명)

	50대 자영업자			50대 임금근로자		
	2011년 8월	2012년 8월	증가분	2011년 8월	2012년 8월	증가분
3개월 미만	28	22	-6	538	549	11
3~6개월 미만	34	39	5	254	257	3
6개월~1년 미만	59	56	-3	255	260	5
1~3년 미만	212	228	16	514	549	35
3~5년 미만	164	170	6	272	286	15
5~10년 미만	322	314	-8	341	346	5
10~20년 미만	473	499	27	362	402	40
20년 이상	407	429	22	523	593	70
전 체	1,697	1,757	60	3,058	3,241	18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기가 급격히 수축하지 않고 지금 같은 저성장 국면을 이어가는 한 50대 취업자 수는 이 연령대의 인구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증가폭이 더 크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가능함.

-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는 인구변동도 중요하지만 경기변동과 정부정책, 자영업자 변동의 영향 또한 크게 받는 것으로 보임.

- 〈표 3〉을 보면 카드 사태가 있었던 2003년 8월, 내수침체의 영향을 강하게 받던 2008년 8월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이거나 매우 작았고,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일자리 사업이 집행된 2009년 8월은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기저효과가 나타난 2010년 8월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작음. 또한 2011년 8월과 2012년 8월 증가분을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데에는 비임금 근로자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표 3〉 60세 이상 임금·비임금 근로자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증가분 합계
	전일제 근로자수	증가분	시간제 근로자수	증가분	비임금 근로자수	증가분	
2002년 8월	608	-	83	-	1,599	-	-
2003년 8월	589	-19	101	17	1,526	-72	-73
2004년 8월	626	37	130	29	1,555	29	95
2005년 8월	682	56	133	3	1,633	78	137
2006년 8월	709	28	176	43	1,699	66	137
2007년 8월	804	94	198	22	1,701	1	118
2008년 8월	791	-12	220	21	1,707	6	15
2009년 8월	926	135	279	59	1,640	-67	127
2010년 8월	911	-16	361	82	1,622	-18	49
2011년 8월	971	60	389	28	1,716	94	182
2012년 8월	982	11	461	72	1,825	109	19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앞으로 자영업자 증가폭이 둔화된다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도 그 영향을 받아 2011년이나 2012년보다는 작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음.

자영업 취업자 증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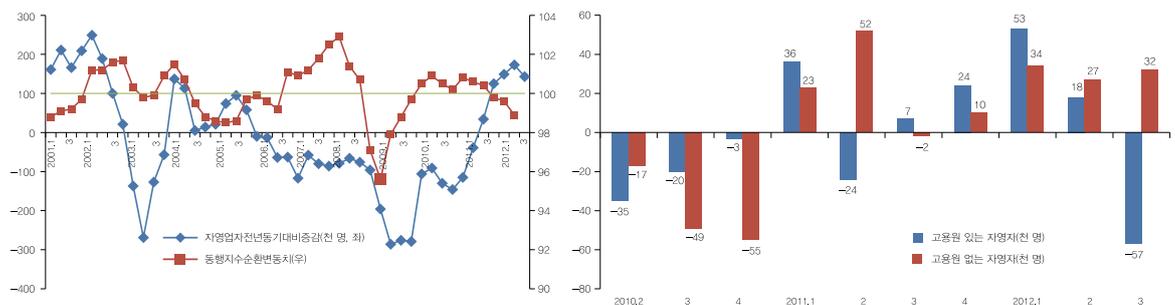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은 전년동기보다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증가세 둔화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거의 같은 흐름을 보여 경기 둔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기와 취업자 수 괴리의 주원인은 자영업자 증가에 있음. 전년동기대비 자영업자 추이를 보면,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 흐름과는 다르게 2011년 3분기 이래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그림 1 좌측 참조).
- 다만, 계절조정된 수치를 통해 전분기 대비 증감을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2년 2분기 대비 3분기에 57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우측 참조).
 - 계절조정된 월별 자료로 보더라도 10월까지 5개월 연속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감소함. 특히 전월대비로는 10월에 고용주, 자영업자

모두 각각 14천 명, 38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흐름은 2011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자영업자 증가국면의 모습과는 다른 것으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경우 2012년 4분기 이후 자영업자 증가폭이 꾸준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 가능한 상황임.
- 내수산업 중심의 서비스업이 고용증가세 견인
 - 2012년(1~10월 평균)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455천 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서비스업 내 상용직 증가세와 더불어 자영업자의 가파른 고용증가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은 2012년 10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70천 명 증가에 머물렀으며, 서비스업 내 자영업자는 10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54천 명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의 증가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편 민간부문(454천 명)의 주도로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2012년(1~10월 평균) 고용의 특징 중 하나는 공공부문에서도 고용이 증가하여 상반기에만 전년동기대비 145천 명 증가함.

[그림 1] 경기와 자영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주: 우측 그림은 계절조정된 수치로 전분기 대비 증감 수.
 자료: 통계청 KOSIS.

〈표 4〉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10	2008. 1~10	2009. 1~10	2010. 1~10	2011. 1~10	2012. 1~10	
전 체	282	145	-72	323	415	283	167	-83	312	407	461	
산업별	건설업	16	-37	-91	33	-2	21	-37	-92	32	-20	38
	제조업	-42	-52	-126	191	63	-45	-40	-146	173	93	-11
	서비스업	356	260	179	200	386	353	280	162	221	364	455
	도소매업	-38	-41	-32	-20	58	-43	-38	-37	-14	48	61
	운수업	54	1	-1	33	52	60	7	-8	37	49	48
	음식숙박업	-0	-5	-107	-47	-36	1	-4	-103	-51	-39	53
	금융보험업	20	15	-55	42	38	16	22	-65	48	35	0
	전문과학등	21	55	87	40	77	27	44	91	36	80	72
	사업시설등	135	20	-29	78	64	141	22	-24	74	69	23
	교육서비스업	38	44	48	-33	-113	42	48	41	-14	-131	65
	보건업	59	103	156	155	158	54	100	156	153	170	90
	개인서비스업	23	-11	-3	3	3	23	-9	-3	2	3	13
공공 여부	공공	-5	43	191	-71	-9	-12	50	183	-70	-6	7
	민간	287	101	-263	395	424	295	-266	382	413	45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2012년 8월부터 제조업 고용증가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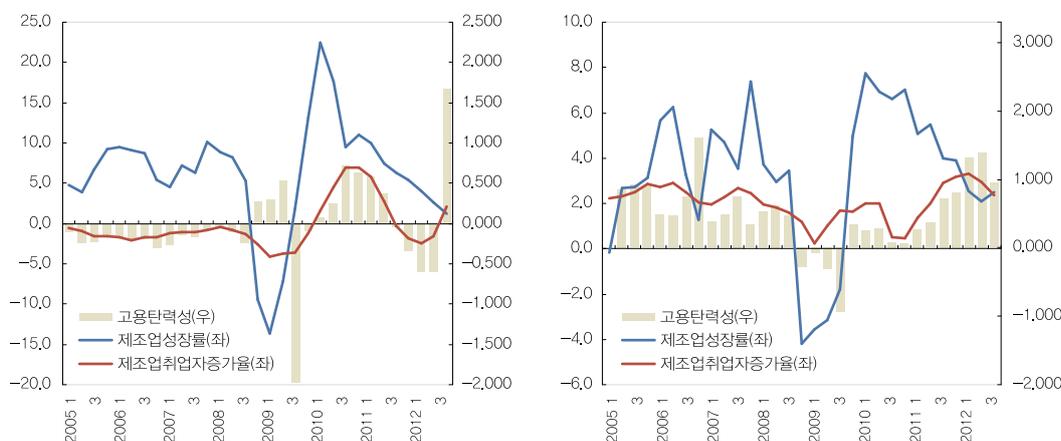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기 전까지 지속되어 오던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 없는 성장은 2010년 1월부터 고용증가세로 전환되어 19개월 지속되다 2011년 8월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2012년 7월부터는 상용직 주도의 제조업 고용증가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음.

- 사실 제조업에서 상용직은 3월부터 증가하고 있었으며, 제조업이 고용증가세로 전환한 7월 이후에도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는 모두 고용감소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그림 2]를 보면 2012년 하반기 들어 서비스업 취업자증가율은 주춤한 반면, 제조업 취업자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

〈그림 2〉 제조업·서비스업 성장률, 취업자증가율, 고용탄력성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5〉 제조업·서비스업 종사상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천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10	2008. 1~10	2009. 1~10	2010. 1~10	2011. 1~10	2012. 1~10
제조업	전 체	-42	-52		191	63	-45	-40		173	93	-11
	임금근로자	-23	-49	-96	162	69	-23	-42		137	97	16
	상용직	60	9	10	184	110	66	12	7	159	136	68
	임시직	-71	-49	-73	4	-37	-71	-47	-86	7	-37	-22
	일용직	-13	-9	-33	-26	-4	-18	-7	-30	-29	-2	-30
	비임금근로자	-19	-3	-30	29	-6	-21	1	-37	36	-4	-27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8	-13	-9	11	2	-6	-11	-15	13	4	-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	12	-18	-4	-3	-4	13	-16	-3	-4	-7
	무급가족종사자	-10	-2	-3	22	-5	-11	-1	-6	25	-4	-14
서비스업	전 체	356	260	179	200	386	353	280	162	221	364	455
	임금근로자	360	281	390	371	379	360	294	363	395	377	340
	상용직	294	305	360	502	475	294	312	329	523	468	360
	임시직	94	-25	116	-46	-57	106	-28	119	-32	-63	52
	일용직	-27	1	-87	-85	-39	-39	10	-86	-95	-28	-72
	비임금근로자	-4	-22			7	-8	-14			-13	116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0	4	9	-33	6	-44	8	6	-27	-5	65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52	-31		-78	2	55	-26		-81	-9	56
	무급가족종사자	-17	5	-39	-59	-0	-19	4	-35	-66	2	-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6〉 사업체규모별·근속연수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천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10	2008. 1~10	2009. 1~10	2010. 1~10	2011. 1~10	2012. 1~10
300인 이상	취업자	-55	28	117	-31	37	-68	30	120	-49	49	49
	임금근로자	-55	29	118	-31	37	-68	31	121	-49	49	49
	1년 미만	-29	10	27	-7	29	-34	8	27	-14	41	-32
	1년~2년 미만	-19	-7	11	-14	18	-20	-6	11	-16	19	-1
	2년 이상	-7	26	79	-10	-9	-14	29	83	-19	-11	82
300인 미만	취업자	337	117	-189	354	378	351	137	-203	361	357	412
	임금근로자	475	208	130	548	389	492	228	98	558	394	273
	1년 미만	43	-146	44	188	-158	81	-159	12	227	-164	-27
	1년~2년 미만	164	-29	-69	10	157	170	-20	-70	2	164	-29
	2년 이상	268	383	155	350	389	240	407	156	329	393	33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인할 수 있으며, 2012년 3분기에는 제조업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증가율은 급등함으로써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은 1.677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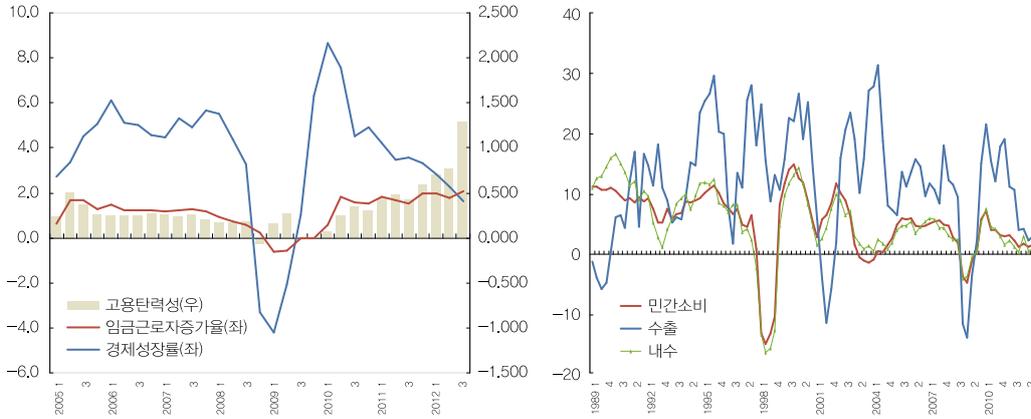
- 2012년(1~10월 평균) 제조업·서비스업 모두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자의 고용증가폭이 둔화되었다는 점은 같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비임금근로자의 고용 변동

이 상반된 양상을 보임(제조업 13천 명 감소, 서비스업 121천 명 증가).

- 중소기업 주도의 고용증가세 지속
 - 2012년에도 중소기업 주도의 고용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고용이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경제성장률·취업자증가율 추이 및 민간소비·수출·내수증가율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은 줄어들고,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30대 연령층에서의 임금근로자가 감소하면서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도 신규채용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용탄력성은 2012년 분기별로 각각 0.709, 0.765, 1.287을 기록하는 등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임금근로자 증가세의 지속과 자영업자의 증가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2012년 고용의 가장 큰 변화는 2011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자영업자의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임.

■ 2013년은 2012년에 이어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여전히 저조한 3.5%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고,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당분간 L자형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하락속도가 세계경제 성장 하락속도에 비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에는 장기화되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겠지만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소비의 회복속도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¹⁾ 최근 수출, 내수, 민간소비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 나라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설명해 주는 고

■ 2013년 취업자는 33만 명 증가할 듯

- 2013년 고용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저성장과 더불어 자영업자 고용증가세의 지속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경제가 L자형의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지속된다면 경기순응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고용증가폭은 소폭의 등락을 경험하면서 올해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의 고용증가폭이 최근 10월에 크게 둔화되었고 2011년의 자영업 증가세에 대한 기저효과 및 밝지만은 않은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반영한다면, 자영업의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리라 예상됨.
- 2013년에는 2012년의 취업자증가폭에는 미

1) 한국은행(2012. 10) 금통위 의사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기침체가 최소 21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11년 4분기부터 경기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2013년 하반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4] 임금·비임금근로자의 고용탄력성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표 7> 2013년 고용지표 전망

(단위: %, 천 명)

	2012			2013		
	상반	하반p	연간p	상반p	하반p	연간p
경제성장률	2.5	2.2	2.4	2.6	3.7	3.2
생산가능인구	41,441	41,652	41,564	41,938	42,181	42,060
경제활동인구	25,359	25,720	25,539	25,690	26,095	25,893
경제활동참가율	61.2	61.8	61.4	61.3	61.9	61.6
취업자	24,465	24,933	24,699	24,791	25,273	25,032
(증가율)	1.9	1.9	1.9	1.3	1.4	1.3
(증감수)	450	461	455	326	340	333
실업자	894	787	840	899	823	861
실업률	3.5	3.1	3.3	3.5	3.2	3.3
고용률	59.0	59.9	59.4	59.1	59.9	59.5
비경제활동인구	16,082	15,932	16,025	16,248	16,086	16,167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치지 못하겠지만 고용증가세는 지속되어 취업자증가폭은 연간 약 33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가계부

채의 부담 등으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려는 성향이 강해 실업자 수는 2012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지만 고용률은 59.5%로 2012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보임.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팀 / 02-3775-5580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